

大賞 정영옥氏와 딸 김이레양

포천문화원, 제1회 家族 시 낭송 경연대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문인협회,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후원한 제1회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가 11월29일 박운국 포천시시장, 이강립 포천시의회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 과, 문화원 임·직원 등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여성회관 만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시가 만날 때'라는 주제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시 낭송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 행사로 15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가졌다.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게 살아야 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좋아하는 시 한편을 읊미 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쉬운 일이 아니며 메마르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 시를 낭송하며 대화의 꽃을 피

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 문학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대회 결과 소솔음에 거주하는 정영옥씨와 딸 김이레(이곡초 3년)양이 '우화의 강' (마중기작)을 낭송해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천시

자유기고

시와 음악과 낭만



김기호
주행기자단교원

우리가 눈발이라면
하공에서 쭉뚝뚝뚝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새살이 되자 (안도현님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송하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축하 시를 낭송하신 모두는 젊은 청년 시절로 돌아 간 듯 계면적이고 조금은 떨렸는지 상기된 얼굴에 그러면서도 순수한 시심이 묻어났던 내빈 여러분.

대상의 트로피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보였던 가족, 참으로 오랜만에 접해보는 흐트하고 아름다운 정겨운 모습들이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시를 숭상하는 사람치고 인품이 고매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우리

포천 시민 누구 나가 삭막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시를 낭송하며 대화의 꽃을 피워 가는 여유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년 대회는 보다 더 많은 참가 가족을 모시고 함박눈 내리는 날

춥도록 준비하고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시적 공간을 준비 하교자 한다"는 이만구 원장님의 소망대로 내년부터 대회 날엔 꼭 꼭 목화꽃 같은 함박눈이 내려 주어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시민(市民)과 시(時)가 어울릴 때' 가족 시 낭송 경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포천문화원은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시 낭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회 가족시낭송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은 대상을 차지한 정영옥씨와 딸 김이레양,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포천지역의 人物연구 학술심포지엄

포천문화원, 대진대인문학연구소 共同으로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2월1일 대진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와 함께 '포천 지역의 인물 연구'를 주제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 강의실에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 대진대학교 인문대학장 및 포천향교, 포천유도회, 포천문화원 회원, 경주이씨 종중 등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포천지역의 인물에 대한 작품 및 학문을 구체적인 분석하고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청성 성대중 연구, 개회기 선각자 동봉

이해조, 오성과 한음에 대한 연구동향, 광암 이벽의 종교 철학 및 포천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연구'를 주제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 강의실에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학술 심포지엄이 우리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고문화 主題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관광도시 포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2006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수상자와 광고협회 회원, 포천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 포천만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열렸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고문화'라는 주제로 포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간판 디자인 창작 ▶기설치물 ▶아름다운 간판 부문 등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 미술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35개 대학 학생들과 광고전문가, 일반인들이 모두 280여 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특히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 공모전은 지난해보다 작품 수준과 응모수가 크게 향상돼 전국대회로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학교수들과 포천시 정책자문위원, 한국광고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날 간판디자인연구소 박현숙 씨가 대상, 영디자인 진영



포천시는 2006 대한민국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 씨와 한양여대 이예은 씨가 최우수상을, 건국대 임현지 씨 등 4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81명이 입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하사를 통해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에 대한 시민과 광고주, 광고업자들의 의견전환이 선행돼야하며 '간판은 문화'라는

공감대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포천시가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일주일간 포천만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입상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3)

효자 신급

선조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급선생은 혼자 집에 남아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강원도 이천으로 피란을 가던중, 갑자기 왜적을 만나 어머니께서 낱떨어지에 떨어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크게 통곡하여 울부짚었다.

"형은 앓을 호중하고 두 동생은 왜적과 싸우다가 죽고 나는 어머니를 모시다가 내가 잘 모시지 못하여 어머니 생명을 보존하여드리지 못한 중재(重罪)를 짓으니 내 어찌 살아 있겠느냐?"

하고는 낱떨어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나중에 보니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신 급 남은 1554년(명종 9

년)~1592년(선조25년) 내 고향 포천 내촌면 내리에서 출생하시어 효자정려(孝子旌闈)를 받으신 명문가의 효자이시다.

선비의 가정의 최고의 영예를 받으신 것이다. 효자정려를 하사 받은 가문은 벼슬길은 물론 명문가의 문벌로 사회적대우로 융성하였던 시대였다.

신급남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즐겨하셨으며 경서(經書)를 통독(通讀)하고 학식과 기개가 높은 학자였다.

선조조 율곡선생과 성헌선생이 동서봉담으로 논쟁이 심할 때 동인의 종친인 박근원의 무리에게 탄핵을 받고 조정을 떠나게 되자 신급남이 이 상황을 보고 유생

수십명을 이끌고 동인의 무리가 당리 당락(黨利 黨略)만을 위하여 여진 선비를 모함하는 부당한 행위를 강력 상소하였으니 임금 이를 받아들여 율곡,우계(성헌) 선생이 조정에서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율곡이나 우계를 탄핵한 박근원은 대사헌의 자리에 있거나 신급남의 기개가 선비의 기상을 잃지 않은 충성심이었다. (병조판서, 평천부원군)

동생 신입(申立)남은 무관으로 병마정도사 한성판윤을 역임

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수변사로 왜적과 전투하다가 전사한 용장이었다. 막내 할(?)은 수어사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 순국한 장수였다.

공신(功臣), 충신이자 무훈에 빛나는 형제를 두었으며 효자였던 신급남의 명문가의 효자 정려는 내 고향 포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등 국란(國亂)을 당하여 자기의 부모도 버리고 임금도 버리고 도망칠지는 무리들이수도 없이 많았던 시절, 여러 형제들이 임금을 모시고 나라에 충성하여 적을 맞아 죽음으로 나라를 수호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한 신급남의 가정이야말로 내 나라 내 고장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선비의 최고의 덕목인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혈통을 이은 본받을 명문거족임을 재삼 강조해 본다. 지역 교과서는 물론,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977년 창업이후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 제조 외길
- 고유브랜드 '에이론'은 최고의 품질로서 공급
- 완충포장재와 방수층 포장재에서 Q마크 획득

주요 생산품목

파이프, 덕트, 공조기용 보온재, 토목건축용재, 포장완충재, 배관용보온마감재, 스포츠레저

대표이사 안익준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456-6
TEL. 031)541-9251~2 FAX. 031)541-0103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실 연

- 우리는 다산사상을 연구·실천한다.
- 우리는 경제발전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힘쓴다.
-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며 깨끗한 정부에 협력한다.
- 우리는 범죄예방을 위해 솔선수범 앞장선다.
- 우리는 환경보전과 예술문화 창달에 공헌한다.

* 회원 가입 문의 : (031) 543-5073 (다실연 사무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88-1
다산 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 위원 일동